

사회참여, 초고령사회 춘천,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길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다. 춘천시의 7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63,079명으로 전체인구의 21.68%를 차지한 초고령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언제부터인가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다. 이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지혜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략적이거나 알 수 있다. 다만 전국 통계여서 춘천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신 자료인 지난해 10월 발표된 자료중 노인의 사회 참여 실태 부분만을 소개한다.

교육 및 학습 활동에는 전체 노인의 13.3%가 참여하여 월평균 5.3회, 7.4시간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5%로 낮은 편이며, 참여자들은 1년동안 월평균 2.2회 참석해 4.6시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봉사가 88.9%로 가장 많았다.

흥미롭게도 앞으로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 조사에서는 친목 활동(46.2%)과 여행 및 관광 활동(44.6%)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취미활동(38.6%), 종교활동(28.6%), 자원봉사 활동(12.6%), 동호회 활동(12.3%), 교육 및 학습 활동(10.6%) 순이었다.

정부의 대응과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춘천미래동행재단의 시니어 상담사, 다양한 시설 해설사, 보조 교사, 시니어 컨설턴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노인들이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참여의 개인적·사회적 의미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보탬이 된다. 집 안에만 머무르면 자칫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깥세상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아야 한다.

동네 산책을 하거나 문화센터 수강,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외부 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 기능의 유지와 함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노인 일자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일터에서 얻는 성취감, 동료들과의 교류,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존중받고, 그들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9. 1.)
참여자 박정선 팀장님